

백운광장, 도시재생으로 피어난 꿈과 희망

기고



박정환
광주 남구 부구청장

1980년대 후반, 봉선동의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친구들과 백운광장을 거닐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백운광장은 남구의 중심지로, 골목마다 가게와 시장이 줄지어 있고 사람들로 북적이던 활력 넘치는 공간이었다.

1990년대 초까지 백운광장은 광주 남구의 대표 상업 중심지로 지역 경제와 상권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곳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곽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과 도시 공동화, 그리고 백운고가도로로 인해 점차 쇠퇴기에 접어든 것으로 기억한다.

올해 초, 남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며 다시 마주한 백운광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백운고가가 철거된 자리에는 마치 푸른 용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듯한 '푸른길 브릿지'가 웅장하게 들어섰고, 이는 남구 도시재생의 새로운 상징이자 희망의 징표였다.

총 연장 350.8m의 공중보행로인 푸른길 브릿지는 푸른길공원을 연결하면서도,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통해 보행자 편의성까지 세심히 고려한 구조물이다. 2024년 4월 개통 이후 백운광장을 찾는 하루 유동인구는 기존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했고, 브릿지 위에서는 길이 42m, 높이 9m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를 즐기는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또한, 미디어월에는 공공목적 광고를 유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목할 변화는 '백운 스트리트 푸드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8월 개장한 이 공간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으로 인해 한동안 유동인구가 줄며 침체를 겪었으나, 푸른길 브릿지 개통 이후 방문객이 세 배 이상 증가하면서 상인들의 매출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난 상태이다. 이는 골목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백운광장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202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15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은 지역경제를 견인할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이다. 넉넉한 주차공간은 상권 접근성을 높이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매장은 지역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의 장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도시재생의 본질을 담고 있는 사업이기

도 하다.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도 함께 조성되고 있다. 2026년 6월 완공 예정인 '백운광장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청년 공유오피스, 창업지원 공간, AI면접실 등 첨단 시설을 갖춘 청년 복합 플랫폼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미 지역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청년와락'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머물고 활동하며 정착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이다. 이는 청년을 지역의 주체로 세우는 도시재생 전략의 실천이자,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백운광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의 완성을 향해 또 하나의 큰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원형육교와 문화광장 조성이다. 길이 160m의 원형육교와 500석 규모의 상설공연장, 잔디광장,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어우러질 이 공간은,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주민에게는 휴식과 문화가 있는 일상 공간으로, 관광객에게는 남구의 정체성을 담은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80년대 후반의 추억을 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백운광장은 이제 남구의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는 이 공간에서 다시 시작되는 백운광장의 이야기는 곧 남구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상생하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3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 산불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였다.

매년 3~4월 성묘 시즌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 중 하나이다. 묘소 주변의 낙엽, 잡초 등을 불로 태우거나, 담배꽂이를 무심코 버리는 일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산불은 숲과 인접 주택, 문화재, 기반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인명사고까지 유발하기에 실수로 불을 낸 실화라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불은 "그저 작은 실수"라는 명목하에 발생한다. 다만 그저 실수라 하기엔 너무 잔인한 불길은 건조한 숲에 무섭게 퍼져 손쓸 틈 없이 커다란 화재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산불이 발생하면, 자신의 힘으로 끄려 하기보다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대피령이 떨어지면 가까운 학교나 체육관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산에서의 화기 취급을 자제하고, 작은 불씨 하나로 인해 수많은 생명과 숲이 위협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종성 <진도경찰 경무과 순경>

기고 | 홍능석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순천역장

KTX 개통 21년, 전남 동부권 발전의 마중물 약속



4월1일은 우리나라에 KTX가 운행한 지 21년째를 맞이하는 날이다. KTX는 대한민국 최초 고속열차로서 만나질 생활권이라는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민의 시간까지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대적인 혁신을 가져왔다. 국민의 이동 편의 개선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촉진했으며,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 동부권 KTX 운행은 전라선 전철화 사업으로 대도시권에 비해 다소 늦은 2011년 10월 5일 시작하였다. 개통 초기에는 서울까지 4시간 가까이 소요되었으나,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2시간 40분대로 단축되어 명실상부한 고속열차가 운행하고 있다. 운행 횟수가 초창기 10회에서 현재 36회로 3배 이상 늘었고, 하루 평균 이용객도 1985명에서 9734명으로 5배나 증가해 KTX는 이제 우리 지역의 대표 교통수단이 됐으며,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3년과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우리 지역의 굵직한 국제행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KTX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본다. 더불어 KTX는 전남 동부권 관광지 인지도 제고 및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 지역민의 수도권 대형병원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여수 및 광양 산단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 등 지역발전과 지역민 편의 증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KTX 개통 21주년을 맞아 순천역에서는 지역민의 철도 이용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오는 4월14일부터 오전 7시31분에 출발하

는 KTX 열차를 약 1시간 앞당겨 운행함으로써 수도권에서 오전 업무처리 시 촉박했던 불편함을 해소한다. 철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무더위로 불편했던 선상 이동통로에 통풍 설비를 구축하고, 승강장 끝단 미비한 지붕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등과도 협업을 강화한다. 순천시는 물론 인근 보성군 및 곡성군 등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 함께 지역축제 공동 홍보와 철도관광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순천만국가정원, 곡성 장미축제, 보성 다향제 등 지역관광자원과 축제를 함께 홍보하고, 열차 이용객이 쉽게 지역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지역 구석구석 숨은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철도여행상품을 운영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이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8월 말에는 보성~임성리간 남해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순천~광주송정간 경전선 개량사업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순천역은 동서남북 사통팔달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한 단계 도약할 전망이다. 순천역은 철도 인프라 확대 및 환경변화에 맞춰 지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늘 지역민의 편익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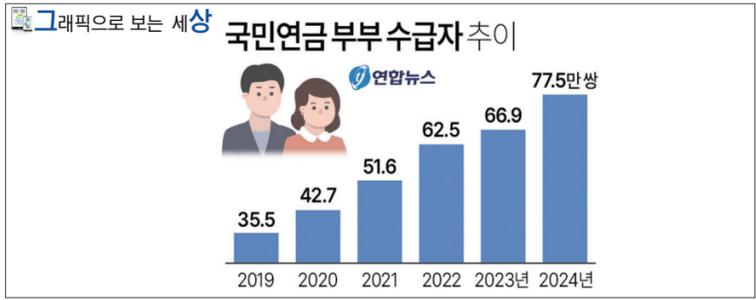
스물한 번째 KTX 생일을 맞아 코레일을 사랑해주는 지역민과 철도고객께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독자투고

돌이킬 수 없는 불씨 하나

울창한 숲과 산내음, 풀과 나무가 어우러져 태초의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청정 도시 경북 의성에서 안타까운 재난이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24분경 경북 의성군의 야산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커지면서, 천년 고찰인 고운사가 전소되고 26여명이 화재로 숨지는 등 산불 피해 규모는 서울 여의도의 156배 수준인 4만5157ha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